1천500명, 해운대백병원 1천 명에게 생수와 과일 등을 전달했다. '부산여성리더1040' 회도 고신대학병원을 찾아 누룽지탕 1천여 개를 전달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791버거트럭' 도 해운대구 반송복지관에 취약계층을 위해 햄버거 100개를 전달했다.

'(사)아름다운 사람들' 도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1천500만 원 상당의 방호복 500벌을 부산시에 기증했다. 부산시는 이 방호복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에 전달했다.

종교계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와 부산불교연합회 등은 성금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 밖에 각계각층 시민의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출신 연예인 강다니엘의 팬들도 코로나19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강다니엘팬 '팀어벤져스' 는 부산지역 감염 예방에 써 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12만1천 원을 기부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자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9~13일에만 모두 5천227만8천920원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계각층 시민, 코로나19 극복 참여 활발

부산시는 코로나19 기부금을 확진자들이 다녀간 피해 업소 등에 우선 지급하고 있다. 확진자 방문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본 상가와 소규모 업체 250곳에 한 곳당 100만 원씩 2억5천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폐쇄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2억8천600만 원을 배정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에도 1억3천600만 원을 배부했다. 이밖에 방역 현장요원 방호복 구입과 취약계층 수제마스크 지급에 1억7천만 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생활 돕기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성금·물품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자신이 가진 소소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각계각층 시민의 '희망 백신' 전파도 활발하다.

부산 연제구의사회 의사 10여 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순서를 정해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열나고 기침하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각자 운영하는 병·의원 문을 닫고 달려온다. 부산 온천교회를 통한 감염자가 쏟아진 동래구에서도 부산항운병원 의사 등 지역 의사들이 동래구보건소 진료 업무에 일손을 보탰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자 지역사회 곳곳에서 '더 급한 이웃이 먼저' 라는 마스크 나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이 운동은 공적 마스크 안 사기와 직접 만들어 나누기 등의 형태로 확산 중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3일, 부산 강서경찰서 신호파출소 출입문 앞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란색 서류 봉투 안에 마스크 11장과 사탕, 손편지를 두고 간 것이다. 청년은 손편지에 자신을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소개하며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한다.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함께 남겼다.

마스크 나눔 운동, 시민 동참 물결

부족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나누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부산진구 사무실에서 재봉틀 15대를 빌려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이들이 만든 마스크는 1차로 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중증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27곳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2곳 등 모두 72곳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전달됐다. 부산시 새마을부녀회는 하루 5천 장씩 마스크 10만 장을 만들어 지역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부터 1인 약국 위주로 현장 일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내 전체 1천534개 약국 중 674곳에 760여 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신분증 확인과 마스크 판매 등을 돕고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부산시 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도 지난 3월 11일 오후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maskinfo)에서 제공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다. 구별, 동별, 판매처별로 검색할 수 있고 마스크 재고 상태를 4단계로 구분했다.

조민제_jominje@korea.kr



1


2

1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회원들이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서대 학생들이 사랑의 박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과 시민을 위한 일, 힘든 줄 전혀 몰라"
코로나19 예방, 제일 좋은 백신은 '손 씻기'

새벽 출근·밤 12시 퇴근·주말 출근 '일상'

의사 출신 감염병 전문 '부산시 방역관'

인터뷰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지난 2월 21일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사진〉이다. 그날 이후 하루 4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고 한 달여 넘게 이어지는 새벽 5시 출근과 밤 12시 퇴근, 주말 근무는 이제 일상이 됐다.

각 시·도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임명한 1인의 방역관이 있다.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 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갖는다. 통행 제한과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90년 서구보건소 근무를 시작으로 의무직 공무원 생활 30년째인 안 과장은 의사 출신의 '부산시 방역관' 이다. 2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현장 지휘와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후 1시 30분이면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

-시민의 이해와 협조로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가장 긴박하고 힘들었던 순간은.

-온천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힘들 때 등 순간순간이 힘들고 긴장의 연속이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선배·동료·후배 직원들의 헌신과 시민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산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는 예방이 최선이다. 제일 좋은 백신은 손 씻기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앞으로도 언제나 열려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부산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